

# 빈칸 전문항, 순삽무 주요문제 (오답률 상위 5개 문항 포함)

## ■ 빈칸추론[31~34]

이번 빈칸유형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매우 낮다’입니다.

모든 문제가 관계항 발상과 대응으로 풀립니다.  
관계항 발상과 대응에 대한 설명은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이유는

평가원 문제는

지문도 어렵고

설사 쉽더라도

빈칸부분의 맥락이 난해하거나

(대용은 주장 부분인데 빈칸은 예시인 경우)

정답의 근거가 확실하더라도

정답선지가 본문의 대용만을 근거로 하기엔 많이 꼬여있어  
이질감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반면에

교육청 문제는

빈칸을 뚫는 부분이 좀 정직하고 선지에서 고려할 요소도 단순해서 그런 같습니다.

교육청은 정직하다!

평가원은? 000다!;;

하지만,

34번(오답률 59%)만큼은 나름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해설 나갑니다.

■ 빈칸 Process

→ 빈칸은 필자의 중심생각인 두 개의 요소(X와 Y)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빈칸을 형성한 것이라 구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빈칸부분을 먼저 분석하구요! 이러한 빈칸을 포함해서 구도를 잡는 것을 관계항 발상(RT: Relevance Thinking)이라고 해요^^ 그 이후에 글의 처음부터 읽는데요. 앞서 잡은 RT의 시각으로 글을 읽고 맥락(Context)을 감안하여 정답의 근거인 대용어(Paraphrasing)를 찾아요.(이 과정을 저는 CP라고 해요.) 그 다음엔 이 대용어들을 빈칸요소(BE: Blank Elements)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선택의 기법을 동원합니다.

<정리>  
 RT: 빈칸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는 것!  
 CP: 글을 읽으며 맥락(Context)을 고려하여 정답의 근거인 대용어(Paraphrasing) 찾기!  
 BE: 빈칸에 들어가야 할 대용어, 빈칸 요소!

문제가 너무 쉽긴 했네요

31. If you increase people’s awareness of time—by placing a big clock in front of them—they do more stuff. Think about how much work you get done on the day before vacation. It makes sense that by getting more done, we’d feel more in control. More than that, it’s one of the great fantasies of time management: If you get more organized, you will get on top. However, that works only in a finite world. We haven’t lived in that world for quite a while. In our infinite world, we will never be able to get on top of everything. When we complete more tasks, more take their place—send more e-mails, get more replies. If we do more as a result of better managing our time, we just become \_\_\_\_\_. [3점]

\* finite: 유한한, 제한된

- ① safer ② wiser ③ busier ④ greedier ⑤ happier

-----  
 ■ RT - If에 주목해서 구도를 잡으면

: If we do more as a result of better managing our time, we just become \_\_\_\_\_.

→ [시간을 더 잘 관리한 결과로 더 많이 함 → just Y]

→ 더 줄이면 [시간관리+더 많은 일 → 단지 Y]

\* just단지(단순한 결과)에 근거해서 힌트를 얻으면 그냥 ‘더 많은 일을 한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③이 되죠. 하지만 실전에선 그래도 끝까지 읽어봐야겠죠?

■ CP

① If you increase people’s awareness of time—by placing a big clock in front of them—they do more stuff.

→ 정리하면, [시계를 둔다. + 더 많은 일을 한다.] 아까 RT에서 잡은 X와 같은 말이죠? 처음에 관계항을 잘 잡으면 문장의 처음부터 그 관계항의 시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② Think about how much work you get done on the day before vacation.

→ 휴가 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생각해보라? 무슨 말이죠? 이 말을 왜 하죠?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많은 일을 한다! 정도는 읽힙니다.

③ It makes sense that(말이 된다. 합리적이다! 당연하다!) by getting more done, we’d feel more in control.

→ by에 주목해서 구도를 잡으면 [더 많은 일 → 통제하고 있다고 느낌!]입니다. 기억나나요? 우리의 빈칸은 Y입니다. 즉, ‘통제하고 있다!’가 일단 Y의 후보자!

④ More than that, it's one of the great fantasies(환상적이라네요.) of time management(시간관리에 있어서!): If you get more organized, you will get on top.([정리된다(체계적이다=관리한다) → 통제한다]의 구도입니다.)

→ 이 문장에선 get on top이 어려운데요. 위에 있다! 통제한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동사의 뜻을 모를 때는 이걸 모른다고 괴로워 할 것이 아니라 전치사를 통해 그 뜻을 추론하는 것이 중요해요. 6평 rule out은 out에 주목하여 배제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만한 모든 단어와 숙어를 외운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저런 기법을 동원해서 돌파하세요.^^)

⑤ However, that works only in a finite world.

→ 역접입니다. 앞의 것이 다 날라갔네요. 반대라는 소리니까 안 좋은 거네요. 구체적으로는 통제의 반대가 와야 하네요. **'통제되지 않는다.'** 첫 번째 정답의 근거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대응어는 본문에서 모자이크를 하나씩 맞춰가는 그림 퍼즐게임일 때가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설사 정답의 근거라는 확신이 있어도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⑥ We haven't lived in that world for quite a while.

→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세상(finite world)에서 살지 않았답니다. 즉 우리는 infinite에서 살았다는 말이 나오겠죠?

⑦ In our infinite world,(네!) we will never be able to get on top of everything.(역시 나왔네요. 따라서 통제하지 못한다!)

⑧ When we complete more tasks, more take their place — send more e-mails, get more replies.

→ When에 착안하여 구도를 잡으면 [더 많은 일 완료 → 더 많은 일 생김]입니다. 여기서 Y인 **'더 많은 일 생김'**도 정답의 근거입니다. \* 구문: more(더 많은 일들) take(차지하다) their place(그들의 자리)

⑨ If we do more as a result of better managing our time, we just become \_\_\_\_\_.

■ BE - 통제되지 않는다. 더 많은 일 생긴다. 따라서 ③번 busier가 적당합니다.

32. With the invention of typography, spacing and punctuation solidified from gap and gesture to physical artifact. Punctuation marks, which were used differently from one scribe to another in the manuscript era, became part of the standardized, rule-bound system of the printed page. The communications scholar Walter Ong has shown how printing converted the word into a visual object precisely located in space: "Alphabet letterpress printing, in which each letter was cast on a separate piece of metal, or type, marked a psychological breakthrough of the first order.... Writing moves words from the sound world to the world of visual space, but print \_\_\_\_\_." Typography made text into a thing, a material object with known dimensions and fixed locations. [3점]

\* scribe: 필기사

- ① moves words away from their association with sound
- ② offers unrestricted dimension to this space
- ③ locks words into position in this space
- ④ enhances the inherent concept of words
- ⑤ confines words to limited meanings

■ RT - but에 주목해야 합니다. writing(쓰기)과 print(인쇄)가 but을 기준으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 Writing moves words from the sound world to the world of visual space, but print \_\_\_\_\_.

대립항을 잡아보면

- \* B(writing) → 말을 소리에서 시각으로 이동시킴
- \* A(print) → Y  
입니다.

대립항을 이해하고 있고, 감이 좋다면 여기서 바로 정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시각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므로 시각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보내거나 이동시키지 않은 것일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둘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본문에서 B를 통해 그것과 대응되는 것의 반대를 찾거나 A(print)와 대응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 CP

① With the invention of typography, spacing and punctuation solidified from gap and gesture to physical artifact.  
→ with에 착안해서 구도를 찾으면 [ typography → solidified]의 구도가 됩니다. 여기서도 바로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죠. 일단 typography는 print의 대응어입니다. 인쇄 - 타이핑만 생각해도.. 되죠. 엄밀한 의미는 활판인쇄술이지만 이런 단어를 몰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print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from gap and gesture to physical artifact도 쉽지 않죠. 하지만 from ~ to는 옮겨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invention을 생각해보면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hysical(물리적인) artifact(인공물)로 solidified(굳어진 것)이 핵심어고 그 중에서도 solidified가 핵심어라고 생각되죠. 왜냐면 RT를 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정답의 근거( 옮겨가지 않는다)를 찾았으니까요.

② Punctuation marks, which were used differently from one scribe to another in the manuscript era(필사본 시대), became part of the standardized, rule-bound system of the printed page.

→ 우리의 X인 printed page를 기준으로 보면 다시 Punctuation marks가 (과거에는 사람마다 달랐지만) standardized, rule-bound system가 되었다네요. 이 말은 대립항을 생각해서 사람마다 다르지 않았다는 관점으로 읽

어야겠죠?

③ The communications scholar Walter Ong has shown how printing converted the word into a visual object precisely located in space(고정되었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네요.): “Alphabet letterpress printing, in which each letter was cast on a separate piece of metal, or type, marked a psychological breakthrough of the first order...(바로 해석 안 되나요? 안 되도 뭐 이미 정답의 근거는 나왔죠. 앞에서 찾은 정도면 변할 일이 없습니다. however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아~ 뭔가 ‘심리적 변화를 일으켰구나’ 정도만 파악해도 되요.)

④ Writing moves words from the sound world to the world of visual space, but print \_\_\_\_\_.”

⑤ Typography made text into a thing, a material object with known dimensions and fixed locations.

→ [프린트 → a thing = a material object with known dimensions and fixed locations]

→ [프린트 → a thing = ~~a material object with known dimensions and fixed locations~~] and는 양쪽이 역접은 아니라는 말이니깐 이렇게 fixed에만 주목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있다면 앞의 것도 의미를 탐색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답의 근거를 주렁주렁 달고 왔으니까요!

■ BE - 고정됨

- ① moves words away from ~~their association with sound~~ (X) 소리가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 ② offers ~~unrestricted dimension~~ to this space (X)
- ③ locks words into position in this space (O) locks가두다 into~로
- ④ ~~enhances the inherent concept of words~~(X)
- ⑤ confines words to limited ~~meanings~~(X) 의미가 아니라 시각적인 위치죠!

\*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빈칸 중에 가장 짜릿했습니다.

관계항을 잡아 풀다 보면 교육청 문제는 변칙으로 풀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요.

RT하고 침묵은 순접에 근거해 다음 문장을 보니 Y자리에 fixed가 있었고 빠르게 처음부터 print 관련어에 fixed와 동일한 의미가 있나 팡팡팡 찾으며 내려오니! 금방 풀리더군요.

선지도 정직하게 그냥 fixed와 같은 의미인 locks!

많은 분들이 빨리

관계항(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필자의 생각은 두 개의 요소와 그 관계다!)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명확한 문제에서 짜릿함을 느꼈으면 합니다.

33. Adolescents, adults, and old people all report that their worst experiences have taken place in solitude. Almost every activity is more enjoyable with another person around. People are more happy, alert, and cheerful if there are others present, compared to how they feel alone, whether they are working on an assembly line or watching television. But the most depressing condition is not that of working or watching TV alone; the worst moods are reported when \_\_\_\_\_ . For people in our studies who live by themselves, Sunday mornings are the lowest part of the week, because with no demands on attention, they are unable to decide what to do. The rest of the week psychic energy is directed by external routines. But what is one to do Sunday morning after breakfast, after having browsed through the papers? For many, the lack of structure of those hours is devastating. [3점]

- ① one's mind is driven by work on demand
- ② one is tired of repeated routines at work
- ③ one's mind is unable to keep away negative thoughts
- ④ one is alone and there is nothing that needs to be done
- ⑤ one has many acquaintances but doesn't have true friends

■ RT - But에 주목! ;의 기본적인 기능은 앞 문장의 보충·순접입니다.

: But the most depressing condition is not(not A는 소극적 진술이므로 적극적 진술이 와야죠? 즉 not A면 꼭 but이 아니더라도 B를 예상하세요. 그렇다면 ;뒤에 B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that of working or watching TV alone(티비를 혼자 보는 것은 아닙니다.); the worst moods are reported when \_\_\_\_\_ .

when에 주목하여 잡으면

→ [X → 최악의 기분]이 됩니다.

■ CP - 간단하게 잡을게요.

Adolescents, adults, and old people all report that their worst experiences(우리의 Y네요.) have taken place in solitude.(여기는 not A죠?) Almost every activity is more enjoyable with another person around. People are more happy, alert, and cheerful if there are others present, compared to how they feel alone, whether they are working on an assembly line or watching television.(별 거 없어요. 결국 But부터 맥락이 바뀌고 본론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ut the most depressing condition is not that of working or watching TV alone; the worst moods are reported when \_\_\_\_\_ . For people in our studies who live by themselves,(혼자 사는 사람! 아까 not A인 alone!) Sunday mornings(이것이 X네요! 하지만 비유적 표현! 이것의 함의를 알아야 합니다.) are the lowest part of the week, because with no demands on attention,(여기네요!) they are unable to decide what to do.(여기도!) The rest of the week psychic energy is directed by external routines. But what is one to do Sunday morning after breakfast, after having browsed through the papers? For many, the lack of structure of those hours(여기도!) is devastating.

■ BE - 정리하면! 혼자 있는 것 + 할 일이 없는 것

- ① one's mind is ~~driven by~~ work on demand (X) 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 ② one is ~~tired of repeated routines~~ at work (X) 마찬가지로
- ③ one's mind is unable to keep away ~~negative thoughts~~ (X) 매력적이지만 본문에 없습니다.
- ④ one is alone and there is nothing that needs to be done (O) 두 개의 빈칸요소를 모두 충족하네요.
- ⑤ one has ~~many acquaintances but doesn't have true friends~~ (X)

34. As essayist Nassim Taleb resolved to do something about the stubborn extra pounds he'd been carrying, he considered taking up various sports. However, joggers seemed skinny and unhappy, and tennis players? Oh, so upper-middle-class! Swimmers, though, appealed to him with their well-built, streamlined bodies. He decided to sign up at his local swimming pool. A short while later, he realized that he had been caught by an illusion. Professional swimmers don't have perfect bodies because they train extensively. Rather, they are good swimmers because of their physiques. Similarly, female models advertise cosmetics and thus, many female consumers believe that these products make them beautiful. But it is not the cosmetics that make these women model-like. Quite simply, the models are born attractive, and only for this reason are they candidates for cosmetics advertising. As with the swimmers' bodies, beauty is \_\_\_\_\_ . Taleb calls the confusions like the cases above the *swimmer's body illusion*. [3점]

- ① what triggers gender stereotypes
- ② a quality with no absolute standard
- ③ a factor for selection and not the result
- ④ what helps people boost their self-esteem
- ⑤ the product of constant care and investment

-----  
 \* 오답률 59%네요. 빈칸 중 가장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 RT

: As with the swimmers' bodies, (수영선수의 몸과 유사하답니다. 즉, 순접이니까 수영선수의 그 어떤 것도 빈칸의 그거가 되겠네요.) beauty is \_\_\_\_\_ .

→ [아름다움 → Y]

= [수영선수의 무엇 → Y]

■ CP

① As essayist Nassim Taleb resolved to do something about the stubborn extra pounds he'd been carrying, he considered taking up various sports.

→ 살을 빼려고 한다네요? 뭐죠? 왜 살을 빼? ..... 이런 분위기면 예시의 시작이죠. 예시의 호흡은 길어요. 감안하고 읽어 가야 합니다.

② However, joggers seemed skinny and unhappy, and tennis players? Oh, so upper-middle-class!

→ 조거들은 별론데 ㅎㅎ 테니스 선수는 중산층처럼 보인답니다.

③ Swimmers, though, appealed to him with their well-built, streamlined bodies.

→ 하지만! 수영선수는? 그를 때려시켰네요. RT를 할 때 본 수영선수이고 이것은 유사를 통해 빈칸의 근거가 되니 긴장해야 합니다.

④ He decided to sign up at his local swimming pool.

→ 수영으로 살을 빼려고 합니다.

⑤ A short while later, he realized that he had been caught by an illusion.

→ 깨달음? 환상이라는 것을!

⑥ Professional swimmers don't have perfect bodies because they train extensively.

→ [수영선수 → 집중훈련 때문(에 완벽한 몸)이 아니다] not A는 B를 부르죠?

\* 이때 because가 무엇을 수식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n't 와 because를 결합해서 읽을 수 있었다면 쉽게 이해되었을 것 같아요.

⑦ Rather, they are good swimmers because of their physiques.

→ 나왔네요. B. [수영선수 → 체격덕분]

\* 여기서 방향이 바뀌네여. [체격 → 수영선수의 완벽한 몸!] 아하! 아까 아름다움! 기억나죠? 그렇다면 한번 더 정리해볼까요? [not 훈련 but 체격 → 완벽한 몸!]

\*\* 다시 나타난 because (of)와 not A but B의 대응을 통해 아까 헷갈렸던 don't have perfect bodies because they train extensively.를 맞춰보니 don't have perfect bodies because they train extensively.는 이해가 되네요.

⑧ Similarly,(유사! 아까 RT의 As가 여기서는 Similarly! 대용이죠.) female models advertise cosmetics and thus, many female consumers believe that these products make them beautiful.

→ [화장품 → 아름다움]입니다. 만들어지나요?

⑨ But it is not the cosmetics that make these women model-like.

→ 아니라네요. 마찬가지로 not A가 시작됩니다.

⑩ Quite simply, the models are born attractive, and only for this reason are they candidates for cosmetics advertising.

→ but이나 rather가 없지만 B로 읽어야 합니다. 소극적 진술은 사실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타고남 → 아름다움]입니다!

\* only for this reason are they candidates for cosmetics advertising

→ only가 강조부사라서 의문문형 도치가 일어났어요. they are candidates for cosmetics advertising가 are they candidates for cosmetics advertising로 의문문으로 바뀌었죠?

⑪ As with the swimmers' bodies, beauty is \_\_\_\_\_.

⑫ Taleb calls the confusions like the cases above the swimmer's body illusion.

\* 정리하면 아름다움을 만든 것은 'not 훈련 or 화장품, but 체격, 타고남'이네요. 자.. 여기서 뭐가 생각 나시죠? (본질적) 대립항입니다.(강의용어를 써서 죄송;) (본질적) 대립항이란 단어의 뜻 자체가 반대를 예정하는 단어들이죠. 전통은 현대를 부르고 사랑은 증오를 부릅니다. 이렇듯 인간은 반의어를 통해 이 세상을 분류합니다.(흔히 이분법적 사고라고도 합니다만 편할 때도 있어요.^^;)

- 훈련과 화장품 그리고 체격과 타고남이 각각 의미하는 본질을 빈칸요소로 확정해야 합니다. 이쯤이면 생각나시죠?

■ BE - 노력(후천)이 아니라 타고남(유전)!

① what triggers gender stereotypes(X) 성적 고정관념? 그런 말이 어디에 있나요?

② a quality with no absolute standard(X) 본문에 없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③ a factor for selection and not the result(0)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명확합니다. 근데...) 선택의 요인? 뭐죠? ..... 자 이럴 땐 빈칸의 맥락을 동원해야죠. 정답은 직구로 오지 않아요. 봅시다! 이 글에서 아름다운 건 모델이죠? 그럼 모델의 아름다움 관련어 중에 놓친 게 있나요? 앗! 아까 도치구문! '모델은 화장품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아름다워서 후보들이다.' 아하! 모델의 아름다움은 화장품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그 광고에 발탁된 원인이군요!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볼까요? [화장품 → 모델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 발탁] 관점을 바꿔서 서술했으니... 이해가 안 되죠. 어렵네요. 선지가 까다로워요. 단순하게 born을 근거로 하지 않고 허를 찌르면서 들어옵니다.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있네요. 약간 '평가원스러운' 선지였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④ what helps people boost their self-esteem(X)

⑤ the product of constant care and investment(X)



[35~36]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는 순서문항인데도 정답률이 매우 낮아요.

35.

Broad, open-ended questions show your interest in the other person's situation. They often start with "Tell me," "how," "who," "what," or "why."

- (A) Our computer salesperson might have a client who says, "I need more control over our order system." He then builds on that response by asking a question using the most important words in the answer — *control* and *order system*.
- (B) They are much more powerful than closed questions that require a simple answer such as "yes" or "no" or a specific piece of information. After the broad question opens the conversation and begins to build rapport, the artful questioner builds on the responses and increases his understanding of the information being transferred.
- (C) For instance, he might ask, "What aspects of your order system would you like to have more control over?" or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your order system?" When the client responds, he builds his next question around the response to that question, and so on.

- ① (A) - (C) - (B)                      ② (B) - (A) - (C)
- ③ (B) - (C) - (A)                      ④ (C) - (A) - (B)
- ⑤ (C) - (B) - (A)

-----

■ 순서문항은 주어진 문장을 분석하고 이어질 단락, 즉 1을 먼저 찾아야 해요. 그 후에 1의 마지막까지 읽고 다시 2를 찾는 거죠. 순서와 관련된 정보는 크게 지시, 대응, 연결, 서사정보와 관계항(X → Y)의 구도로 찾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죠!

\* 순서문항 치곤 꽤 높은 오답률(60%). 순삽무장의 때도 말했지만 삽입이 어렵게 나온다면 순서문항도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두 유형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라서요. 조심하기 바랍니다.

① 우선은, 주어진 문장을 관계항으로 정리합니다.

: Broad, open-ended questions show your interest in the other person's situation. They often start with "Tell me," "how," "who," "what," or "why."

→ [개방형 질문? → 다른 사람의 상황안에서의 너의 관심사(를 보여준다)] 별다른 얘기가 없죠?

\* 이제 1을 찾아야죠.

(A) Our computer salesperson... 엉뚱하죠? 그렇다면 예시.. 근데 예시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나요? 일단 의심!

(B) They(누구?) are much more powerful than closed questions(than은 '비교의 대립항'이니 closed의 반대가 they네요. 그럼, they는 open question이네요. 그렇다면 B가 1입니다..... C를 봐도 예시의 시작이므로 여기가 주어진 문장에 이어지는 '주장부분'입니다.)

\* 이제, (B)를 마저 읽고 '1의 뒤'와 이어질 '2'를 찾아야죠.

\* 근데? 예시는 C에서 시작되니까 B-C-A인가요? 보죠.

(A)를 읽어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Our computer salesperson might have a client who says... 를 보니 상황을 설정하는 내용이예요.  
그리고 (C)를 보니 he가 있네요!

(C)가 (B)에 이어지려면 (B)에는 남자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B)에는 남자가 없어요!

응? 그럼 (A)-(C)가 연결되나요?

a question using the most important words in the answer — control and order system을 보면  
control and order system은 a 때문에 처음 나온 말이죠?

(C)에는?

있네요. 확실합니다. B-A-C!

게다가 (A)-(C)는 a client → the client도 순서를 말하고 있네요. ^^

또 하나 글의 취지는 open-ended questions에 대한 얘기이고,  
(A)에서 He then builds on that response by asking 등을 통해  
이러한 open-ended questions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마지막 (C)에서 그런 생각의 결과로 나오는 open-ended questions의 예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순서는 A-C의 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번은.....

순서문항치곤 의외의 논리로 나왔네요.  
보통의 예시가 가지는 호흡의 길이를 무시하고  
대명사의 선후와 a → the 등을 통해 순서를 맞추게 했습니다.  
또 보통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순서인데,  
이 지문은 고객을 맞이하고 마케팅에 가장 적합한 질문을 생각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어렵네요;;;

최근에 순삽무를 완강하면서  
이번 수능은 삽입만이 아니라 순서도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우연치곤 놀랍게 이번 7모에서.. ㅎㅎ

다시 강조합니다.

이번 수능엔  
순서문항도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같은 통수'를 치지 않아요.  
같다면 통수가 아니지요.

이 말은  
삼입이 쉽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삼입은 그대로 어렵고  
'순서'나 '무관한 문장'같은 방심했던 유형이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하기' 바랍니다.

38. 삽입유형

Furness was told one family's *fei* had been lost at sea many years earlier while being transported from a nearby island during a storm.

If you're frustrated by the market and you're looking for a currency that can stand the test of time, look no further. In the Caroline Islands in the South Pacific, there's an island named Yap (or Uap). ( ① ) In 1903 an American anthropologist named Henry Furness III visited the islanders and found they had an unusual system of currency. ( ② ) It consisted of carved stone wheels called *fei*, ranging in diameter from a foot to 12 feet. ( ③ ) Because the stones were heavy, the islanders didn't normally carry their money around with them. ( ④ ) After a transaction the *fei* might remain on a previous owner's land, but it was understood who owned what. ( ⑤ ) But that stone was still used as currency, even though it was unseen and irretrievable beneath hundreds of feet of water.



이번 모고 최고 오답률(72%) 문항입니다.  
무엇이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문장삽입을 푸는 원칙은

- ① 주어진 문장을 분석하여 앞·뒤에 무엇이 있을지 예측하고
- ② 이어질 문장의 허점을 찾아 넣는 것입니다.

- 들어가면,

Furness(??? 뭐죠?) was told(아! 얘기를 들었으니 Furness는 사람이네요. 들은 얘기는?) one family's *fei*(???) had been lost(*fei*를 잃어버렸다?) at sea(바다에서) many years earlier(수년 전에) while being transported(이동 중에 잃어버렸다네요.) from a nearby island during a storm. (폭풍우 중에 섬 근처에서)

음....도무지 힌트를 잡을 수 없습니다.ㅎㅎ  
일화형 글은 연결사든 관계항이든 힌트가 부족하기 마련이죠.  
그냥 내용을 정리하고 읽어 내려갈 수밖에 없을 듯.....?

- ① 그래도 앞에 무엇이 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one family's *fei*! 보이나요?  
fei가 뭔지는 몰라도 '한 가족의 *fei*'란! 이미 한번은 나타난 것이죠.  
한 가족의 *fei*.. 그죠.

한 가족의 것으로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생소한 *fei*는 이미 설명했어야 합니다.

- ② 이 문장 뒤엔 무엇이 이어질까요?  
일화형 글은 서사정보가 핵심이니  
바다에 빠진 저 *fei*에 대해 그 이후의 이야기가 와야겠죠.

자 이 힌트들을 가지고 읽어 가야 합니다.;

If you're frustrated by the market and you're looking for a currency(통화, 돈이네요.) **that can stand the test of time**(시간의 시험을 견디다?), look no further.(더 알아볼 필요도 없다?)(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정도만 캐치하고 들어가야 하네요.) In the Caroline Islands in the South Pacific, there's an island named Yap (or Uap). ( ① ) In 1903 an American anthropologist named Henry Furness(사람 맞군요) III visited the islanders and found they had an unusual system of currency.(unusual은 암시적 표현입니다. unusual system에 대한 얘기가 이글의 주제겠네요.) ( ② ) It(system of currency!) consisted of carved stone wheels called *fei*(!) ranging in diameter from a foot to 12 feet.(돌로 만든 돈인가 보네요.) ( ③ ) Because the stones were heavy, the islanders didn't normally carry their money around with them.(무거워서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 ④ ) After a transaction the *fei* might remain on a previous owner's land(집에 두었네요.), but it was understood who owned what.(그래도 누가 소유했는지는 이해되었답니다.)(연결이 매끄럽네요. 정답은 ⑤번 같은데..?) ( ⑤ ) **But that stone**(앞에 돌이 있었나요? stone은 없네? 2번의 It(system of currency!) consisted of carved stone wheels를 보면 fei는 돌로 만든 화폐네요. 3번에서는 the stones가 4번에서는 fei로 받아져서 5번의 the stone은 앞 문장의 fei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용이란 건 직접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저기 군복을 입은 사람이 한 명 있다. 자세히 보니 여자다. 그 여자가 나에게 길을 물어본다. 나는 그 '여자에게' 또는 '그 군인'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 네! 어느 것으로 말하던지 문제가 없어요. 군인이든 여자인 앞에서 말해진 정보를 넣어서 지칭하는 것이므로 둘 다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4-5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네요. 앞에서 놓친 것이 있었나?) was still used as currency(그 섬의 통화체계의 특성상 바다에 가라앉아도 여전히 화폐로 이용될 수 있겠죠. 이어질 수 있습니다.), even though(양보네요. 양보절에는 보통 앞에서 언급한 것이 들어갑니다. '너는 똑똑하다. 니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열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땠죠? 양보의 접속사는 앞의 말을 넣어서 그걸 인정하되 전체로서 그것과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쓰입니다. 따라서 양보절 안의 말은 앞에 나오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렇다면...) it was unseen(응? 집에 두었으니까 안 보일 수 있겠지) and irretrievable beneath hundreds of feet of water.(이 말도 앞에 언급되어야 하는데? 아하! 이 말은 ④번 문장엔 당연히 없고 주어진 문장에 있네요! 바다에서 잃어버렸으니 바다 밑에 가라앉았겠죠? 그러니 물 아래에 있을 겁니다!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오답률이 무려~ 72%네요. 허허;

어려운 이유는

삽입문제인데도 일화형 지문이 나왔고

④번과 ⑤번(특히 앞부분!)의 흐름이 이어지는 느낌을 주는 점 등이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 읽으면서 글이 붕 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Furness의 fur가 털이라서 '뭔 털이 말을 들어?'라고 잠깐 착각을ㅠㅠ

선지 분포를 보면

3번이 30%, 4번을 고른 분이 30%, 정답인 5번이 28%입니다.

3번으로 간 분들은

'돌이 바다에 빠졌는데, Because the stones were heavy, the islanders didn't normally carry... 무거우니 운반하지 못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4번으로 간 이유는  
‘주어진 문장의 transport가 있고  
4번엔 After a transaction(뭔가 비슷하잖아? 동의어 아닌가?)가 있으며  
the *fei* might remain(바다 속 어딘가 남았겠지)하고  
on a previous owner’s land(그 바다는 원주민의 땅 아닌가? ㅎㅎ;)’라고  
생각한 건 아닌지...

.....

최근 모의고사를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6평에선 빈칸추론(34번)에서 일화형이 나와서 오답률 상위를 기록했는데  
이번엔 일화형 글이 삽입유형(38번)으로 나와서 최고 오답률을 기록합니다.  
뭔가 조짐이 이상합니다. ㅎㅎ;;

일화형 글이 나오면 주어진 문장을 분석하되  
사건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같은 서사정보를 주된 포인트로 봐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도  
*fei*가 ‘이동 중에 바다에 빠졌다’는 사건정보를 기억하고 읽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더하여 빠진 이후의 상황이 나오는 문장을 찾으려 했다면 더더욱..